농식품부, 사과 등 10대 설성수품 17만t 푼다

공급 역대 최대 규모…부담 낮춘 실속 선물세트 공급
송미령 장관 "국민 물가부담 덜 수 있게 역량 총동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을 앞두고 사과, 배, 소고기 등 10대 성수품 물량을 평시의 1.6배로 늘려 공급하고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해 이상 동향이 감지되면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설 성수품 수급 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농축산물 설 성수품 10대 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이다.

이 중 배추와 무, 배는 작년 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과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배추는 전날 기준 한 포기에 5천367원으로 1년 전, 평년(최근 5년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과 비교해 각각 70%, 43% 비싸다. 무는 한 개에 3천415원으로 1년 전보다 89% 비싸고 평년보다 63% 올랐다. 배는 10개에 4만2천793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27%, 26% 높다.

설 성수기에도 이런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10대 품목을 평시의 1.6배 수준인 16만8천t(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협 물량을 제외한 정부 공급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작년 설 성수기보다 13%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와 무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기로 했다. 설 전 3주간(7-27일) 공급되는 물량은 배추는 4천500t, 무는 5천500t에 각각 이른다.

사과와 배도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시장에 내놓고 사과 지정출하물량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한다. 사과와 배는 각각 3만t, 1만t이 시장에 풀린다.

공급이 부족한 배의 경우 제수용 배를 낱개 판매하도록 하고,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과일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축산물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설 대책 기간에는 주말에도 도축장을 운영하고 양계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보유한 물량을 활용해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 등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소비 진작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비해 계란과 닭고기 추가 공급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설 전 3주간 소고기 2만8천t, 돼지고기 7만1천818t, 닭고기 1만5천800t, 계란 1천980t이 각각 공급된다.

밤, 대추의 경우 설 2주 전부터 산림조합 저장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설 성수기 지원 예산보다 10억원 늘렸다. 이 중 380억원(63%)은 전통시장과 중소형 유통업체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대형·중소형 마트 등에서 설 성수품과 설 수요가 증가하는 나물류 등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도는 매주 인당 2만-3만원으로 제한되며 설 성수품 중 공급이 부족한 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통시장 모바일 상품권은 2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소비자에게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전통시장 160곳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농협을 통해 '실속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물량이 충분한 한우는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12.5% 늘려 129t 공급하고 사과와 만감류, 포도 등으로 구성된 과일 선물세트를 10만개 공급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우수 제품과 가루쌀 빵·과자, 전통주 등 쌀 가공품 선물세트도 할인해 공급한다.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농식품 할인정보, 직거래장터 등 구매 정보를 홍보하고 농축산물 부정유통 단속, 도축장 위생 점검도 진행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직접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급 여건이 변화하면 즉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기상 여건 변화, 고병원성 AI 같은 가축 전염병 발생 등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점검해 이상 동향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며 "명절을 맞아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설 제수용품 전통시장서 구매하세요"

중기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할인율 15%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2월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Big4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두번째로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이내로 디지털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며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원이다.

세번째로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 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시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 받는다면 최대 35% 할인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네번째로 같은 기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이벤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이상 사용시 자동응모되며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천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은솔기자

작년 1-11월 나라살림 적자 81조원…역대 세번째 규모

지난해 1-11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원을 웃돌았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천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국세수입은 법인세(-17조8천억원)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5천억원 감소한 315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26조1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수익 증가로 전년보다 20조원 급증한 200조원으로 나타났다.

11월 누계 총지출은 570조1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8%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천억원 적자였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98조3천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3번째다. 정부가 전망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천억원이다. /연합뉴스

"GGM 노사 상생협력 정상화 힘써야"

광주산학연협의회 '조속한 타결 촉구' 성명

광주산학연협의회는 최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협상 결렬선언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인해 지역 산업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을 담은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상생협력 정상화 촉구' 성명을 9일 발표했다.

광주산학연협의회는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모범사례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사협상 결렬은 지역 산업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범사례로 노동조합은 단체행동보다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근거한 조합활동에 임하고 경영진은 노사민정협의회 절차를 준수해 조속한 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에 더욱 노력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의 복지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광주시 모든 구성원은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주글로벌모터스 임직원과 주주들의 노력에 애정과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했다.

광주산학연협의회 회장단은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사협상 과정에서 지역 산업과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는 등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솔기자

CMYK